농지처분 미이행 징수 절반… 부당소송도

제주시, 79건·5억5100만원 부과… 징수율 49% 그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0% "억울하다" 소송 진행

제주시가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5만4316필지·8071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방침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 소유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을 하거나 자기 농업경영 미이용 대상도 농지처분의무 대상으로 판단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청문과 이의신청을 거쳐 2584필지·281ha는 처분을 유예했고 831필지·76ha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또 '가짜 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79건·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49%로 2억7200만원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신청(16건·1억7500만원)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제 농사를 지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주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허모(52)씨는 "수년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짜 농사꾼으로 몰렸다. 농사를 하면서 간간히 찍은 사진과 농약구입 영수증이 있어 농지처분 명령 이행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농사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처분 대상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심사 기준을 건의하고 이제는 읍면동 영농불리 소규모 농지 등은 농지 미활용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등·하교 시간 '맞춤형 버스' 시범 운행

15일부터 만차노선에 투입
토·공휴일·방학 운행 안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춘 '등하교 시간 수요 맞춤형 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맞춤형버스 운행은 상습 만차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등하교 시간 수요 맞춤형 버스' 운행시간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버스시간과 등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1일 1~2회 운행된다.

일반간선 202-1과 202-2번은 신제주로터리에서 오전 6시 57분, 7시 25분, 한림고(한림체육관)에서 오후 4:시45분, 4시19분 출발한다.

제주간선 320-1번과 356-1번은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오전 7시 5분, 7시 8분에 각각 출발한다.

자세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제주버스정보시스템(bus.jeju.go.kr)'과 제주자치도청에서 운영하는 '제주버스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 운행되는 수요 맞춤형 버스는 11월말까지 시범 운행을 마친 후 만차 해소 정도와 이용객 만족도 등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 운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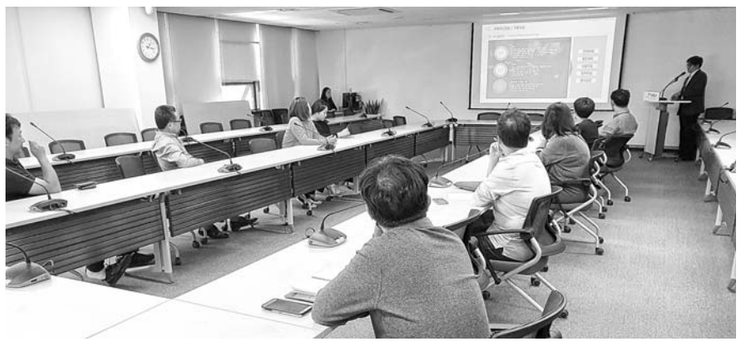
이용 수요가 적은 토·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운행하는 820-3번 버스가 2018년 8월부터 수요 맞춤형 버스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누계 이용객은 2만1416명이며, 1일 평균 이용객은 주중 63명, 주말 38명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녹지공간 최대 확보… 1호광장, 녹색광장으로"

사람중심 광장 조성 위한
국민디자인단 첫 워크숍



10일 서귀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에서 조남석 총감독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함께 '사람중심1호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1호광장을 녹색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10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워크숍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의 총감독을 맡은 조남석 공공디자이너의 사업 계획 발표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조남석 총감독은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귀포1호광장을 녹색광장으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주변 상가 간판 등을 가리지 않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시민,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서귀포1호광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귀포1호광장 로터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신호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서귀포1호광장을 녹색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나무는 한번 식재하면 다시 잘라내는 것이 어렵다"며 "나무 높이와 종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은 서귀포시가 문화체육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되면서 내년까지 총 8억원(국비 70%)이 투입될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간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간판개선사업'에 응모해 두 사업의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은 이달 18·23·29일과 11월 1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육성 감귤 신품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 전시포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감귤 신품종 정보 제공"

농기원, 전시포 12곳 운영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을 재배현장에서 농업인이 직접 보고 비교하면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품질이 떨어지는 오래된 감귤원에 대한 품종갱신을 유도하고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농가 전시포 1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시포는 작물의 자람·형태 등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포장으로 시범농장으로 볼 수 있다.

농기원에 따르면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묘목 생산까지 3년 이상 길고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 업체가 생산을 꺼리는 등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감귤 품종 전시포 운영이 농업인과 묘목업체에게 품종의 특징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일환으로 2013년 2곳에서 최초 운영됐다. 이후 현재까지 55곳에서 '상도조생' '써니트(농기원 육성)' '하례조생' '탐나는봉' '신예감' '미니향(감귤연구소 육성)' 등 6품종을 운영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례조생' 10곳, '미니향' 2곳 등 총 2품종을 12곳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청년 목소리 듣는다… 26일 '제주청년의 날'

제주와 전국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콘텐츠로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주시청 일원에서 '제주, 청년이다양!'을 주제로 한 '2019 제주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청년센터, 제주청년원탁회의 및 청년단체 등 도내 청년들이 중심이 되 사무국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기획부터 행사 참여까지 이어가는 청년 주도 행사다.

'2019 제주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의 활동(Activity), 청년의 이야기(Story), 청년의 움직임(Move&net), 청년의 휴식(Rest)이라는 청년A/S/M/R(청년의 다양한 목소리) 컨셉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활동(Activity)에서는 코삿한 청년기지개, 청년 버스킹, 청년라디오, 청년 모자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년의 이야기(Story)에서는 4가지 주제로 패널을 초청해 청년의 날 미니포럼이 진행된다. 청년을 말하다 코너에서는 청년팔이사회 저자(김선기) 및 전국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청년의 움직임(Move&net)에서는 청년정책관련 홍보부스 운영 및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된다.

청년의 휴식(Rest)은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을 위한 청년 보건소, 복불복 물물교환, 체험부스인 청년부스도 운영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10월 20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선착순 40명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성읍2리 입구- 모지오름-따라비-갑마장길-대록산-정석항공관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가입
1999년 8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샤팡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팔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룸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룸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창립기념식 안내

결실의 계절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현봉철태권도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을 하오니, 태권도인 모두가 참석하시어 재단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 소
칼호텔 2층 대연회장

■ 문 의
010-3698-0340
010-3694-0517

재단법인 현봉철태권도장학재단

생명의숲 FOREST FOR LIFE · 서울그린트러스트 SEOUL GREEN TRUST

사라봉공원 환경정비 캠페인

「스타벅스 코리아 20주년을 함께하는 공원의 친구 되는 날」은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봉사단과 함께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자원봉사 기회 확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장비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 시
제 1차 2019년 10월 14일(월)10:00
제 2차 2019년 10월 20일(일)10:00
제 3차 2019년 11월 9일(토)10:00

장 소 제주시 사라봉공원 일대

참석대상
시민, 스타벅스, 생명의 숲 가족

활동내용
잡초제거, 휴지 및 쓰레기 줍기, 고사나무 가지치기, 전정, 주변환경 정비 등

참가문의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사무국 T.064.722-8886

제주 생명의숲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